한국에 기(氣)가 모이고 있다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이 충 웅

1. 머리말

1950년에 한국동란에 참가했던 U·N군이나 중공군 중에서 최근에 한국에 와 본 사람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돌이켜 보건대 자유당시대에 미국의 1억 달러 무상 원조가 당시 국가세입의 80%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으로 3,000만 동포가 1년간 살았으니 그 당시 선진국 사람의 눈에는 한국 사람이 사는 형편이 요사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1962년도 한국의 1인당 GNP가 82달러였던 것이 불과 47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한국의 1인당 GNP가 약 2만 달러에 달했고, 거리에는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의 홍수로 인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등, 한국은 미국이 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산업 세계 1위, 디지털 TV 및 디지털 IT 산업 세계 1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제철산업 세계 5위 등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어리둥절해진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가장 큰 발전 속도로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상하기만 하다. 그도 그럴것이 자본, 기술, 자원 및 고급인력, 국가의 기반 시설이 전혀 없었던 한국이 어떻게 해서 해방된지 불과 6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하여 천양지차(天壤之差)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나는 80년대 들어서면서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 氣가 모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을 부정하는 한국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말에는 氣가 세다, 氣가 막힌다, 氣를 모은다 등 氣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문구가 유난히 많다. 그러면 氣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 氣란 글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氣라는 글자는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떼면 가마솥에서 김이 나오는 모양을 상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김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려와 다시 쌀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쌀은 다시 가마솥에 들어가 한 사이클의 순환을 하게 된다(그림 1). 즉, 氣는 이와 같이 쌀이 다시

생산되어 가마솥에 들어가 1사이클 도는 바와 같이 에너지가 상태를 바꾸어 가며 서서히 순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쌀은 고체 에너지, 물은 액체 에너지, 증기는 기체 에너지이므로 氣는 에너지가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가며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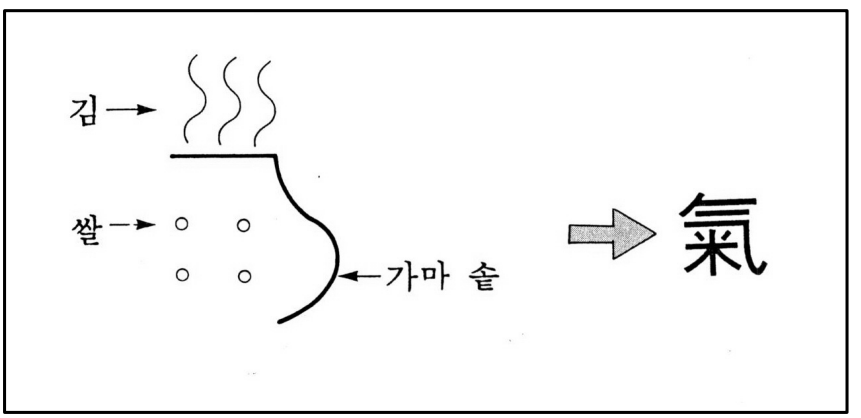


그림 1. 氣의 개념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電氣는 Electric Energy, 磁氣는 Magnetic Energy, 熱氣는 Thermal Energy를 의미하며, 氣의 형태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氣는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정화수를 떠서 정성을 다하여 약을 다렸으며, 북두칠성님에게 정화수를 떠 놓고 손을 싹싹 비비며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그러면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에 의식이 있다는 과학적인 실험을 일본의 에모도 마사루 씨가 하였다. 즉 에모도 씨는 물을 보고 나쁜 놈, 고약한 놈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물을 보고 너는 참 아름답고 착하다고 하고 물의 결정사진을 찍었더니 나쁜 놈, 고약한 놈이라고 했을 때 찍은 물의 결정사진은 흉한 모양의 결정사진이 나왔고, 너는 참 아름답다고 했을 때의 결정사진은 정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찍힌 사실을 보였다. 물은 에너지의 기본 요소이므로 모든 氣에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氣가 뭉치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 되고 흩어지면 만질 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

$E=mc^2$(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광속도)

다시 말해서 Einstein의 에너지 질량 공식은 어떤 물질의 질량이더라도 에너지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에너지의 종류도 물질의 가지 수 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는 10여 가지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氣를 현대 과학의 측정 장비로 관찰하여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측정하여 氣를 電界, 磁界, 遠赤外線, 마이크로波, 超低音波, 光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氣가 우리가 아는 형태의 에너지로 있으면 우리는 관찰할 수도, 측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비에 쌓이게 된다.

이 지구상의 만물은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인 天氣(陽氣)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地氣(陰氣)가 지구 표면에서 만나 조화를 부려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달은 천기를 아무리 받아도 지기(음기)가 없으므로 달에는 氣가 생동하는 생물은 전혀 없다. 지구상에서는 천기와 지기가 모여 뭉쳐서 조화를 부려 사람도 되고 나무도 되고 새도 되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생물이 된다.

새벽에 음기가 걷히고 해가 떠올라 양기가 퍼지면 모든 동물과 식물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하다가 해가 지고 음기가 뒤덮이면 모든 동·식물이 활동을 정지하여 몸을 움츠리고 휴식에 들어간다. 이것은 천기(양기)와 지기(음기)가 동·식물에 주고 있는 영향의 한 실례를 들어 본 것이다.

2. 우리는 쥬신족

동이족(東夷族)인 우리는 쥬신족(朝鮮族)* 이다. 쥬신족은 지금부터 약 6,000여년 전에는 바이칼호로부터 남쪽의 양쯔강까지의 남북 5만리, 서쪽 몽골사막으로 부터 동쪽의 황해까지 2만리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였던 위대한 민족이다.

이 광활한 영토를 모두 합하여 환국(桓國)이라 하였다. 동이족의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로는 동양철학인 주역(周易)을 창시한 복희(伏羲), 농사법과 한의학, 경제, 음악 등을 창시한 신농(神農), 유교를 개조한 공자(孔子),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요(堯), 순(舜)임금, 유명한 병서 육도삼약(六韜三略)을 저술한 강태공(姜太公) 등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은 식민지 사관에 젖어 우리 조선족을 한때 부여, 고구려를 거쳐 만주를 지배했다가 지금은 한반도에서 두 쪽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약소민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쥬신족의 氣가 쥬신족의 사상절정(史上絶頂)기에 있었던 부여(扶餘) 이전의 역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고구려가 패망한 후에 우리의 上古 때의 찬란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사료들을 인멸 은폐 하였으며, 일본도 1910년에 한반도의 성공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20여만권의 쥬신족의 고대사서를 소각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

* 태고 때부터 우리민족을 쥬신족이라 불렀다. 쥬신족의 이두식 한문 표기는 朝鮮, 珠申, 肅愼 등이다.

이때 소각된 사서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프라이드와 힘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족 역사는 일제가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김부식, 일연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史) 등에 근거한 식민지 사관이다.

즉 식민지 사관에 의한 조선족 역사는 '조선족은 양같이 양순하여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고 패기가 없으며, 강대국에게 눌려만 살아 왔으며 남을 헐뜯고 단결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약소민족이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쓴 신라를 중심으로 한 쥬신족의 일종의 지방사이다.

신라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중화족인 당나라를 집안싸움에 끌어들여 동이족인 백제를 멸망시킨 후, 중국식을 따르고 모방하며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로 행세하였다. 한족(漢族)의 적을 자신들의 적으로 삼아 한족과 맞서 싸운 만주지방의 우리 동이족(金, 淸)을 모두 오랑캐라고 칭하며 우리 쥬신족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았다.

우리 쥬신족은 파미르공원에서 발상하여 바이칼호를 거쳐 백두산 쪽으로 이동 정착하였다. 쥬신족의 氣의 발원지인 백두산에 도착한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집단 정착하여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사상 쥬신족의 氣의 절정기에 있었던 기원전 6000여년 경에는 홍산문명(鴻山文明)을 일으키고 남쪽으로 내려와 황하문명(黃河文明)을 일으켰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서기전 4000년경에 배달나라를 세우고 농경민족의 중화족을 제압하여 대제국을 세웠다.

氣의 상승기에 있던 우리 조상들인 동이족은 이미 치우천황(蚩尤天皇)이 기마민족인 쥬신족을 총동원하여 대장정을 감행함으로서 활동무대를 만주에서 황해연안을 따라 산동반도, 하북성 일대로 진출하였다. 쥬신족은 이어 남쪽으로 양자강 이남까지, 서북쪽으로 몽골, 동북 동남쪽으로 시베리아, 전 만주, 한반도 및 일본영토까지 지배하였다.

쥬신족은 새를 숭상했으며, 특히 봉황(鳳凰)*을 상서(詳瑞)로운 새로 받들었다. 한편 중화족은 용을 길하게 여겨 받들었다. 따라서 동양의 고대역사는 봉황의 쥬신족과 용의 중화족과의 대패권 다툼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쥬신족은 본래 기마민족으로 민족이동이 빠르고 용이하여 발해 연안으로 황해안을 선점하여, 중화족을 내륙으로 몰아 붙여 봉쇄하였으며, 중화족은 화산(華山)을 중심으로 내륙 산악지역에 갇혀 바다를 볼 수가 없었다.

우리 동이족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만주 벌판이 주 활동 무대였던 관계로 철광과 양질의 유연탄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의 제련법을 개발하여 철제 무기로 무장한 우리 동이족(쥬신족)은 기병을 주력으로 하여, 석제와 목제 무기로 무장한 중화족을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다.

---

* 鳳은 수컷, 凰은 암컷으로 보황은 암수 한 쌍을 뜻한다.

이것은 철(鐵)의 고자(古字)가 쇠금변(金)에 동이족의 이자(夷字)를 쓴 철(銕)* 이라는 글자였던 것을 보더라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즉 銕이라는 글자는 동이족인 쥬신족이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 후 고구려가 당나라에 패망한 후에 중화족이 銕자를 鐵로 바꾸어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중화족은 쥬신족을 보고 동이족이라고 불렀다. 夷자는 옥편에 '오랑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다시 말해서 夷자는 크다는 뜻의 클大자에 활弓자를 덮어씌워 만든 글자로서 큰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중화족이 보기에는 쥬신족이 상고 때 동쪽에 살면서 말 잘 타고 큰 활로 맹수사냥을 잘 하는 민족이었으므로 동이족이라고 불렀다. 이런 연유에서 오늘날 세계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의 휩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지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농경을 주업으로 하던 중화족은 의심이 많고 왕래가 없어 발전 속도가 늦고, 순장(旬葬)풍습 때문에 백성을 병사로 쓰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이 적은 중화족은 문자를 발달시키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연(燕)나라 때 이르러 그 숫자가 동이족의 10배 정도로 팽창하여 동이족은 서서히 중원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3. 환웅시대(桓雄時代)

서기전 3898년에 개국한 환웅시대는 그 나라 세력이 강대하여 영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바이칼호부터 남쪽으로는 양쯔강까지 남북 5만리, 서쪽은 몽골 사막으로부터 동쪽의 황해까지 동서 2만리, 이 광대한 땅이 모두 우리의 것이었으며 환웅의 나라는 1565년간 지속 되었다. 서기전 2333년에 환웅왕조를 마감하고 도읍을 백두산 아사달로 옮겼다. 이 때 나라 이름을 단군조선(檀君朝鮮)이라고 하고 이 해를 단기원년(檀紀元年)으로 하였다.

단군쥬신은 만주벌판 및 시베리아를 강한 힘으로 다스렸으며, 그 통치기간이 2096년이었다. 그 후 북만주에 예로부터 자리 잡고 살던 가우리(高句麗)사람, 몽골족을 비롯한 주변 종족을 제압하고 북부여(扶餘)나라를 세웠다.

부여 이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을 거쳐 쥬신족의 氣가 서서히 하강하다가 195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氣는 상승기의 6000년의 대주기와 360년의 소주기가 다 같이 다시 오르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59년 만에 세계 190여개 국의 하위권에서 일약 UN의 이사국 OECD회원국이 되었고 세계 10위의 강대국을 건설하였다.

---

* 현재도 옥편에 銕자가 鐵의 옛 글자라고 기술되어 있다.

4. 한국 사람의 기(氣)

한국 사람은 氣가 강한 민족이다. 한국 사람은 氣가 센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우리보다 크고 강한 나라 사람을 지칭 할 때는 꼭 '놈'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미국 놈', '소련 놈', '일본 놈' 등이다. 상대국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보다 작아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놈자 대신에 '사람'자를 붙여 대접한다. 즉 '뉴질랜드 사람', '월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등이다. 같은 중국 사람이라도 대륙에서 왔으면, '대국 놈', 대만에서 왔으면 '대만 사람'이라고 한다.

한국사람(쥬신族)은 氣가 몹시 강하기 때문에 과거 수백년 동안 대륙의 지배를 받아 왔으면서도 고유한 언어와 문자, 관습, 문화를 잘 지켜 왔다. 이 세상에는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린 민족이 여럿 있다. 예를 들면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어도 지금 만주족의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한다.

5. 위대한 한국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해인 1945년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실태와 오늘날의 실태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다 못해 까무러칠 지경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 170여 개국 중에서 국력이 끝에서 4, 5번째였으며 자유당 때 미국이 1억 달러의 무상원조로 겨우 살아 왔다. 그래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겁 없이 용감하게 선진국을 목표로 모든 일에 뛰어 들었다.

지금 해방될 당시를 회고해 보면 남한의 전화회선 수는 약 3만 9,000회선이었는데 지금은 약 4,000만 회선이고 휴대전화 보급이 약 7,000만 개나 된다. 당시의 남한의 전력은 총 발전량이 약 20만kw였으나 현재의 남한의 전력은 총 발전량이 약 7,000만kw이다.

그 당시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진공관식 라디오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의 국가가 되었다. 첨단 전자제품인 IC메모리, 디지털 평면 TV는 세계 1위, 핸드폰은 세계 2위, 조선은 세계 1위, 제철은 세계 5위의 강국이 되었다.

미국 가전업계의 대메이커들 다시 말해서 RCA victor, Emerson, Magnavox, Philco, Silvania, Zenith 등은 1960년대 일본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TV 등 가전제품을 값싸고 좋게 만들어 미국 시장에 상륙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에 겁을 먹고 회사문을 스스로 닫고 가전제품의 생산을 중단, 가전산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일본은 손쉽게 미국의 가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차지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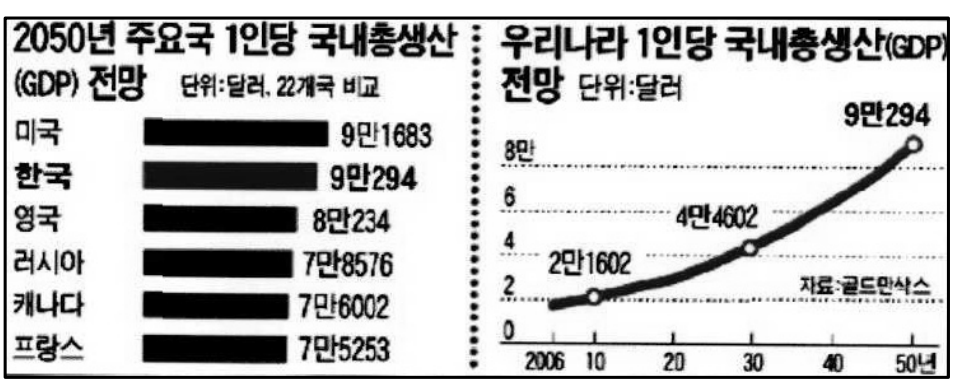
미국의 대재벌들이 일본이 손을 댄 사업은 경쟁해서 이기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사업에서 손을 떼는데 반하여, 한국 사람은 일본이 사업에 성공하여 성업하고 있으면, 그제서야 겁없이 그 일에 손을 대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급기야 세계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만다.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전자레인지, 컬러TV, IC메모리, 핸드폰 등이 그러하다.

이 뿐이 아니다. 포항 제철, 조선산업, 자동차 공업을 시작할 때도 선진국의 사업규모나 기술수준을 보면, 보통 나라 사람은 氣가 죽어 엄두도 못 내는데 한국 사람은 겁없이 달려들어 세계에서 대 성공을 거두고 있다.

6. 한국의 운(運)

한국의 운은 대 상승기에 있다. 지금부터 6000여년 전에 쥬신족의 기운이 절정기에 있어 우리 쥬신족은 시베리아, 만주, 중국의 중원을 지배한 바 있으며, 찬란한 홍산문명, 황하문명을 일으켰다. 바야흐로 6000년 주기의 대운(大運)이 들어오고 있다. 6000년의 대주기의 기운으로 보나, 360년의 소주기의 기운으로 보나 한국의 기운은 상승기에 있다.

한국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의 무역량이 40%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경제면에서 잘 해내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가 회복된다고 세계가 보고 있다. 작년의 수출액은 약 4,200억 불이고 무역 흑자가 약 300억 불에 달하고 있다. 금년의 무역 흑자는 400여 억불이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Goldman Sacks 투자 은행이 2050년도의 선진국 경제 성장 상황을 2008년 중반에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사람은 1997년에 있었던 IMF 경제위기 때도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금가락지, 금열쇠, 금거북이 등을 들고 나와 국가에 헌납하였다. 이것은 세계에서 한국 국민 아니곤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 다행히 IMF 위기는 2년만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림 2) 골드만 삭스 투자은행이 발표한 2050년도 주요 선진국 1인당 GDP 전망도

한국에 氣가 모이고 있다. 한국 사람은 氣가 몸에 꽉 차 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50년의 톱 6개국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그림 2)과 같다. 세계에서 1위인 미국의 1인당 GDP는 9만 1,683달러, 2위인 한국의 1인당 GDP는 9만 294달러로서 미국과의 차이는 불과 1,389달러이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대 큰 사건이다. 또 미국의 Think Tank인 Rand 연구소는 2020년 까지는 한국이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과 나란히 과학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미국의 Rand연구소의 예측은 막연한 생각만은 아니다. 한국 사람은 氣가 매우 강한 민족이다. 한국 사람의 머리속에는 기발한 독창적인 생각(氣)이 번뜩이고 있다. 즉 여러 분야에서 氣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POSCO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장 먼지 속에 들어있는 철가루를 회수하여 1년에 180억 원의 이익을 덤으로 얻고 있다. 즉 먼지 속에 철가루가 50%정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POSCO는 기존의 용광로 공법을 파이넥스 공법으로 연구 개발하여 원가를 25%나 줄이고 있다. 또 POSCO는 품질이 좋은 강판을 생산하여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 강판을 납품하고 있다. 이것은 도요타사가 외국제 강판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요타사는 품질이 좋고 값이 싼 POSCO 강판으로 품질이 좋은 차를 생산 하려는 것이다. 삼성, LG는 세계 전자 가전분야에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즉 핸드폰, 평면 디지털 TV, IC 메모리, PC,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이다. 인도에서도 LG, 삼성제품이 대 인기이다. LG에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단 것을 출시하여 대환영을 받고 있다. 인도 사람은 냉장고를 옛날 한국의 벽장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인도사람의 정서인 것을 간파한 것이다.

미국에서 현대의 제네시스차가 미국의 JD파워가 시행한 상품성 및 디자인 만족도 조사에서 중형 고급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재규어 XF, BMW5 시리즈, 렉서스 등의 순으로 세계적인 명차를 모두 제치고 1위의 최고급차로 뽑혔다. 이로서 제네시스는 2009년 1월에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다. 제네시스는 이어 캐나다에서도 '올해의 차'에 올랐다. 현대에서는 판매 전략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즉 '여러분이 실직하면 현대가 다시 여러분의 차를 인수합니다.' 이것이 먹혀 들어 차의 판매대수가 수 % 증가했다. 물론 불경기로 인해 타사의 차들은 거의 다 판매대수가 마이너스로 감소했다. 미래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미래차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 에너지가 풍부한 배터리 제조 기술이다. 일본은 1990대 중반부터 니켈 수소전지의 개발을 시작하여 전기차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LG 화학과 삼성 SDI 등 국내 기업은 2000년에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니켈 수소 전지보다 값이 10~15% 비싸지만 에너지는 50%정도 더 많이 낸다. 삼성 SDI는 BMW 자동차 회사에 2020년까지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LG 화학도 2009년 1월에 미국 GM의 전기차인 시보래 볼트에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미래의

전기차도 한국차가 빛을 볼 것이 확실하다.

삼성 반도체 산업을 보자. 삼성은 40나노 선폭 공정으로 D램 제조분야에서 기술이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다. 일본의 엘피다*는 원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타이완의 업체들과 합작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에서 40나노 공정으로 원가를 줄임으로써 타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이 든다. 독일의 키몬다가 경영난으로 파산하였다.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엘피다, 대만의 프로모스 등 모든 업체들이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엘피다와 타이완 반도체 업체들이 합작하여 자본 규모와 기술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IC 메모리 제조 시에 회로 선폭을 얼마나 가늘게 하느냐에 따라 웨이퍼(원판)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메모리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회로선 폭이 가늘수록 메모리 개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나노공정은 원가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된다. 국내업체가 40나노 공정을 시행할 때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엘피다는 60, 70 나노대에 머물었고 대만의 프로모스사와 지난 1월에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는 80나노 공정에 주력하고 있었다. 일본의 엘피다, 도시바도 반도체 경영에서 밀려 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삼성 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양산한 초대형 메모리 32기가바이트 moviNAND를 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D램 및 낸드 프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2002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메모리 시장의 43.1%를 점유하고 생산액으로는 307억 달러로 전 세계 생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국내 비메모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 IC 2010' 사업을 추진했다. 최근 하이닉스가 중국시장공략을 강화하고 현지의 후공정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40% 이상의 독보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전화기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군용으로 사용되었던 CDMA 통신 방식을 ETRI와 한국업체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지금은 한국에 휴대용 전화가 약 7,000만 대가 보급되어 있다. 세계에서 휴대전화 통화방식이 크게 나누어 CDMA와 GSM방식이 있다. 삼성에서 만든 애니콜 핸드폰, LG의 사이언 핸드폰 한국노키아에서 만든 핸드폰은 전 세계시장에서 대 인기이다.

또 한국의 건설업도 세계에서 큰 업적을 내고 있다. 리비아의 장장 2,740km의 대수로 공사를 동아 건설, 대한통운 건설이 기적적으로 해냈다. 삼성건설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 160층 818m 빌딩을 건설하여 세계 초고층 빌딩의 위용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 해외 건설 산업은 현대, 삼성, 동아 등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동 등에서 큰 공사를 독점 하다시피 하고 있다.

조선도 세계 제일이다. 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은 세계의 선박을 거의 다 싹슬이 하다시피

---

* 일본의 히다치와 NEC의 합작 회사이다.

하고 있다. 요사이는 재래식 대형 탱커, 대형 콘테이너 등이 선박은 거의 주문이 없다. 그리하여 눈을 돌려 3,000m의 심해에 있는 기름을 퍼내는 드릴십을 건조하고 있다. 러시아 북극해, 러시아의 카스피해에 있는 유전을 캐내어야 한다. 요사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기름이 중동보다 러시아의 북극해 또는 카스피해에 더 매장량이 많다고 한다.

한국의 조선기술은 수심이 3,000m~4,000m 해저에서 10~11km 뚫는 드릴십 기술로 기름을 파내고 있다. 최근에 세계에서 44척의 드릴십 주문이 있었는데 전량 한국 선박 업체인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대우 중공업 주문을 받았다. 이 드릴십 기술은 초속 40m 정도의 강풍이 불고 16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칠 때 드릴링하는 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고난도의 기술이다. 또 북극에 있는 유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필요하다. 이 쇄빙선은 두께 1.6m 정도의 얼음을 깨고 전후로 움직이며 영하 40℃의 혹한에 견디고 초속 40m 정도의 강풍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도 한국의 조선기술이 최고이다. 중국의 조선기술은 드릴십이나 쇄빙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어 한국과의 조선기술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호화여객선도 손대기 시작했다. 2001년에 쌍용중공업이 이름을 바꾸어 STX 그룹으로 발족하면서 2007년에 호화여객선 제조업계에서 세계1위인 핀랜드의 아커야드 조선회사를 인수하고 회사명을 STX유럽으로 개칭하고 호화여객선, 호화유람선 제조를 시작하였다. STX유럽에서 건조한 호화여객선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는 220,000ton, 객실 2,700개, 탑승인원 9,400명으로 유명했던 타이타닉호의 4배의 용량을 갖춘 초대형 여객선이다. 이 배는 미국 로열 캐리비안사에 1조 8천 억원에 팔렸다. 더욱이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의 모든 TV는 삼성전자의 제품으로 채워졌다. STX유럽은 쇄빙선도 3척을 수주했다. 앞으로 한국조선업계는 탱커, 캐리어, 호화여객선, 드릴링십 및 쇄빙선에 이르기까지 명실공이 조선업계에서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기술산업의 실태를 중요한 것만 골라 기술하였다. 한국에는 1950년부터 氣가 모이고 있어 우리가 감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도 세계가 인정하고 주문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중국제 보다 월등이 좋고 값이 그리 비싸지 않고 일제보다 싸고 품질은 대등하거나 더 좋아 global outsourcing 시대에 꼭 맞는다.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상을 생각조차 하기 힘이 들 지경이다.

7. 한국 대운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6000년의 주기, 360년의 소주기가 다 상승기에 올라 한국 사람에게 한국의 氣가 모이고 있다. 봄에 봄기운이 전 들판에 퍼져 꽃과 풀이 사방에서 돋아 나오는 현상을

인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氣가 모이고 분출하고 있다. 한반도의 백두산은 전 지구의 穴자리이다. 풍수에서도 穴자리로 氣가 모인다고 한다. 한반도는 전지구의 생명창조 에너지가 모여 있는 명당자리이다. 풍수학에서 땅은 그 위치와 형국에 따라 그 생명력이 각기 다르기 마련인데, 한반도는 전 지구의 생식기와 같은 穴자리로서 지구의 생명기운을 이 穴에서 분출한다. 백두산 천지가 穴자리로서의 氣의 근원이라면 한반도의 氣는 남쪽이 세다. 백두산[5] 을 氣의 발전기로 보고 백두대간을 송전선으로 본다면 송전선의 끝이 전압이 제일 높다. 즉 한반도의 남단이 氣가 제일 강하다. 역대 대통령이 거의 다 남쪽에서 나왔고 남한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고 있다. 이 氣의 360년의 소주기가 1950년을 최소 점에서 59년이 지났으며, 현재 10대 강대국으로서 UN 사무총장을 낸 국가가 되었다.

1950년 6.25동란 당시 한국의 실정을 생각해 보자. 세계 170여개국 중에서 끝에서 4, 5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지금은 한국은 193개국 중에서 10등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 추세로 가면 41년 후인 2050년에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도 남는다.

8. 태극기는 세계를 대표한다

한국(옛 명칭 쥬신)이 세계를 리드하는 대국이 된다는 것은 국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세계 193개국 중에서 우주를 상징하는 국기는 태극기 하나밖에 없다. 즉 태극음양(太極陰陽)에서 건(乾)은 하늘을, 곤(坤)은 땅을, 이(離)는 해를, 감(坎)은 달을 상징한다. 도형의 푸른색은 음(陰)이고 붉은색은 양(陽)을 나타낸다. 태극도형(太極圖形)은 대우주 대생명의 힘에 변화를 일으켜 천지인만물(天地人萬物)의 창조의 작용을 일으키는 운동력을 상징한다. 태극의 형태는 하나의 円속에 상대성으로 균형을 이룬 음양태극이 엇물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탕의 흰색은 천지가 생길 때의 밝음의 빛으로서 한 민족의 바탕인 광명정신을 나타낸다. 백색은 한민족의 순결성과 백의민족을 상징한 것으로서, 어떤 색이든 받아주고 소화할 수 있으며 영구불변하고 맑고 밝고 무한하고 평화로운 우리의 자세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중앙의 태극도형은 우주의 본체상을, 흰 공간은 우주의 공간을, 4괘는 만유의 생성변화를 나타낸다. 천지 만물은 음과 양(태극)의 상대성 원리로 생성된다. 태극기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러한 우주질서와 원리를 파악하여 도형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태극기는 '우주' 그 자체와 우주만상의 근원으로서 영구불변을 상징한다. 그리고 태극기의 이러한 상징성은 세계주의적인 보편성과 우리 민족의 이상을 드러낸 것이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표출한 것이다. 이로서 태극기는 190여 개 국의 국기를 모두 다 포용한다. 즉 세계의 국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9. 맺음 말

이상과 같이 동이민족의 뿌리와 역사, 우리 민족의 발전과정과 활약상, 풍수학적 고찰, 태극기의 우주 상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바와 같이 2050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 될 것이며, 2050년이 지나면 한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종주국이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2060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노벨상이 터져 나올 것이며 세계를 과학기술, 산업기술면에서, 정치 외교면에서, 예술, 윤리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에모토 마사루(江本) 양억관 옮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나무 심는 사람. 2002.
2) 金珊瑚 大朝鮮帝國史 (1), pp. 17, pp. 24, 동아출판사. 1994.
3) 이일봉 '實證 한단고기' pp. 32, 정신세계사. 2007.
4) 이상학 '한한한의 비밀과 사명(下)' pp. 250, 대원출판. 2000.
5) 이상학 '한한한의 비밀과 사명(下)' pp. 270, pp. 265 대원출판. 2000 ; 金珊瑚 大朝鮮帝國史 (1), pp. 91, 동아출판사. 1994.
6) 이충웅 '한반도에 氣 모이고 있다' pp. 40~50 집문당. 1997.